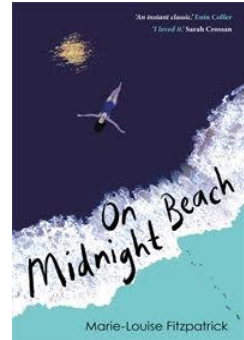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ON MIDNIGHT BEACH
가제 : 한 여름 밤 바다에서
저자 : Marie-Louise Fitzpatrick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20년 4월 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문학



*"성장의 본질에 대한 매력적이고도 아름다운 소설"- 사라 크로선

*"고대 전설 속 숨 쉬고 있는 현대적인 마술" -에오인 콜퍼

아일랜드의 캐리그 코브, 에머와 에머의 마을 친구들은 곧 여름 즈음 열 일곱 살이 될 터였다. 에머를 포함한 네 명의 십대들은 그 해 여름, 여름을 맞아 다시 캐리스 코브로 돌아온 돌고래들을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신비한 만남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억눌려 있던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사건이 되고 아일랜드 고대 설화 역시 깨어난다. 압도적이고 신비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사랑과 우정이라는 본질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그 폭력에 맞서는 두 십대 소녀들에 대해 그리고 있는 이야기이다.

세스 컬렌 ('쿨란의 맹견'이라는 별명을 가진 고대 아일랜드의 얼스터 전설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 대표작인 <쿨리의 가축 습격>에서 코노트 왕국의 군대에 맞서 17 세의 쿠쿨린이 얼스터 왕국을 지켰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소설에서 세스 컬렌은 이 고대 설화의 주인공을 작가가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인물이다.)은 여덟 살 때, 마을 정육점 주인인 헤가티의 개였던 래셔를 죽였다. 그 개는 엄청 사납게 생긴 개였고 파리 하나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헤가티의 생각에 따라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마을을 쏘다녔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래셔는 키호 여사의 작은 요크셔테리어 스크랩을 잔인하게 물어 뜯어 죽여버렸다. 그 후, 에머의 어머니는 한 번 피를 맛 본 개는 또 피를 맛 보길 원하는 법이라며 최대한 그 개를 만나게 되면 절대 눈을 쳐다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치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래셔는 어느 날 작은 개가 아닌 에머를 비롯한 어린 소녀들을 공격했다. 에머와 에머의 절친한 친구인 피는 미친 듯이 달렸고 미처 래셔를 피하지 못한 매리는 그 개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말았다. 마을 골목은 매리의 비명소리로 가득했고 래셔는 매리를 거칠게 공격했다. 그리고 그 때 어디선가 세스 컬렌이 나타나 막대기로 래셔를 내리쳤다. 덕분에 매리는 가까스로 그 개에게서 풀려 났지만 래셔는 분노로 으르렁 거리며 대신 세스를 공격했다. 하지만 세스는 에머의 어머니의 말과는 달리 래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공을 마치 미사일처럼 그 개의 입 속으로 던져 한번에 개를 죽이고 말았다. 그 순간 동네 아이들 모두 그 현장으로 몰려 들었고 마을 소년들의 대장인 거스와 키트는 개를 죽인 세스를 비꼬는 동시에 치켜세우느라 바빴다. 에머는 순간 분노로 세스의 뒤틀린 얼굴과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은 표정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두려운 눈으로 그 개의 시체를 발로 툭툭 건드리는 남자아이들의 얼굴과 상황을 파악한 다음 세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개를 몇 번 쓰다듬더니 마치 고깃덩어리라도 되는 냥 개의 시체를 어깨에 들쳐 메고 유유히 사라지는 헤가티의 모습을 바라 보았다. 그리고 그 날 이후 거스의 명령에 따라 모든 소년들이 세스를 추앙하며 그를 ‘도그 (dog) 컬렌’이라고 불렀고 온 마을 사람들 역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 날 이후 에머는 겁먹은 토끼 같던 아이들이 단번에 늑대들 무리처럼 변해버린 모습과 세스의 잔인한 얼굴 그 속에서 흐르고 있었던 야만성과 공포를 결코 잊을 수 없었고 개에게 그랬듯이 계속해서 세스의 눈을 피하며 다녔다.

세월이 흘러 1976 년, 여름 돌고래 떼들이 여지 없이 캐리그 코브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돌고래들이 해안 가까이까지 다가와 있었다. 에머의 가장 친한 친구 피와 피의 동생은 에머에게 달려와 이번이 돌고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일생 일대의 기회라며 하루라도 빨리 함께 돌고래를 보러 가자고 즐겼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피와 로리, 에머는 바다로 가기 위해 급하게 길을 나섰다. 에머는 그 과정 중에 넘어져 세스를 덮칠 뻔 했다. 에머는 세스를 보자마자 당황한 나머지 빨리 사과하고 최대한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하지만 세스의 곁에 있었던 키트가 피에게 불이라도 났는지 묻자 피가 돌고래를 보러 가야 한다고 말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다 같이 돌고래를 보러 가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네 친구들은 거의 처음으로 한 장소에 모여 하얀 거품들 사이로 하얗게 빛나는 지느러미가 파도 위로 솟아나는 것을 보았고 옷을 걷은 다음 바닷속으로 천천히 다가가 돌고래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에머는 오랫동안 세스에 대해 느꼈던 공포심을 점점 잊고 다정하고 세심한 세스의 모습에 점차 빠져들며 손만 잡아도 온몸에 불이 붙는 것만 같은 새로운 감정을 품게 되었다.

행복을 느낀 것은 에머만이 아니었다. 몇 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과 신비로운 돌고래들이 해변 가까이 까지 찾아왔다는 소식은 캐리그 코브로 수많은 관광객과 그와 더불어 찬란한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이웃 마을 로스 마을에 있는 호텔 주인의 딸 매브는 캐리그 코브의 행운을 시기하며 어떻게든 그 곳에 있는 돌고래들을 로스 마을 해변가로 데려올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은 두 마을의 오랜 갈등과 숨겨져 있던 지옥의 문을 열고 말았다. 아이들은 과연 돌고래들을 어른들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

<저자 소개>

마리-루이스 피츠패트릭 (Marie-Louise Fitzpatrick)은 수상 경력을 가진 아일랜드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다. 전작으로는 『The Sleeping Giant』, 『Izzy and Skunk』, 『Hagwitch』, 『There Owl Bat Bat Owl』 이 있다.

제목 : THE MARVELLOUS LAND OF SNERGS

가제 : 스너그들의 환상의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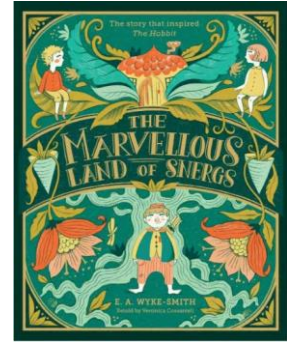
저자 : Veronica Cossantelli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20년 11월 5일

분량 : 미정

장르 : 판타지



*** 1927 년 출판 되어 J.R.R. 톨킨이 소설 『호빗』을 쓰는데 결정적인 영감을 준 작품인 잊혀진 고전인 E.A. 와이크의 소설을 재탄생시키다!**

핍과 플로라 두명의 고아 소년 소녀는 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된 아이들이 모여 있는 써니 베이 홈에서 도망치고 스너그들이 살고 있는 '환상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주 깜빡깜빡 하긴 하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스너그 (훗날 톨킨이 '호빗' 캐릭터를 창조할 때 바탕이 된 존재), 고르보를 만나 친구가 되었거 고르보는 그들에게 집을 찾아 주기로 했다. 이들의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톨킨이 위급 상황에서 함께 도망치고 싶은 보석 같은 인물이라고 말한 매력적인 캐릭터 스너그 고르보와 동시에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스너그들의 '환상의 땅'이 등장하는 아름답고 신비한 동화 같은 소설이다.

써니 베이 홈 고아원의 운영자인 왓킨스씨의 앞에는 그녀가 세운 규칙을 어긴 세 명의 규칙 위반자들인 플로라, 핍, 무려 이백 살이 넘은 '작은 사람' 즉, 스너그가 있었다. 플로라는 머리로 반쯤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벤치에 앉아있었고 핍은 그 곁에 서서 다리를 덜덜 떨고 있었다. 그리고 고이 고아원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던 스너그인 고르보는 울적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왓킨스씨는 써니 베이 홈에서는 완벽히 계획된 건강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핍과 플로라가 잼과 빵 부스러기를 뒤집은 채 발견 되었는지 고르보에게 캐물었다. 이에 고르보는 아이들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파이 한 조각을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왓킨스씨는 이는 명백한 규칙 위반이라고 따졌다. 그러자 핍은 참지 않고 고르보는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뿐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왓킨스씨는 고르보가 하라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마녀나 요정에 대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고아원 아이들을 허상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규칙까지 어기도록 주동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한편 플로라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플로라는 3년 전 여덟 번째 생일 이후 입을 꼭 다문 채, 늘 이렇게 머릿속에서 나비처럼 쏟아져 나오는 생각들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때 왓킨스씨는 고르보에게 이제 이 고아원에서 나가달라는 충격적인 통보를 했다. 핍은 왓킨스에게 직접 항의했고 플로라는 입술을 꼭 깨물며 나름대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고르보는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순순히 고아원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고르보를 몰아낸 왓킨스씨는 이번에는 핼과 플로라에게 벌을 받는 대신 다른 아이들이 퍼핀섬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는 동안 반더게켄 대위의 배가 있는 해안까지 야채를 담은 자루들을 운반할 것을 명령했다. 그 말을 듣자 핼은 실망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핼은 그 누구보다 퍼핀섬으로 소풍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때문이었다. 핼은 결국 이성을 잃고 왓킨스씨에게 자신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벌칙을 주고 멍청한 규칙들을 정한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하지만 왓킨스씨는 여전히 강경하게 규칙은 규칙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고 결국 핼과 플로라는 다음 날 야채 자루를 등에 지고 고된 여정 길에 올랐다.

핼과 플로라는 서로의 비참한 꼴을 바라보았다. 핼과 플로라는 이 고아원에 온지 얼마 안된 아이들로 같은 날 이곳에 오게 되어 친해진 사이였다. 핼과 핼의 부모님은 원래 같은 서커스단에 있었는데 엄마는 같은 단원이었던 한 불 같은 남자와 사랑에 빠져 어린 핼과 남편을 두고 떠나버렸고 핼의 아빠는 얼마 전 서커스단 우리에서 탈출한 호랑이에 물려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핼은 이 곳에서 지내게 된 것이었다. 한편 플로라는 엄마와 아빠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플로라는 비록 값비싼 목마와 인형의 집이 있는 화려한 곳에서 성장했지만 아빠는 이미 엄마 곁을 떠난 지 오래였고 엄마는 잠자기 십분 전에만 잠시 플로라를 보러 왔을 뿐 그곳의 그 누구도 플로라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플로라의 여덟 번째 생일날 새 남편 후보를 물색하는 파티에 다녀오느라 잔뜩 지쳐 있는 엄마가 자신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나무라자 플로라는 결국 실어증에 걸리고 말았다. 심지어 플로라는 새남편과 함께 타이타닉호를 타고 갔던 엄마와 새 아빠가 함께 해상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이 고아원에 오게 된 이후에도 늘 침묵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플로라가 고아원 문 앞에서 보라색 옷을 입은 한 여인에게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플로라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선 핼은 와이키 숲에서 플로라와 길 잃은 강아지 타이거를 만나게 되었다. 이 세 친구들은 함께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이상한 생물들이 사는 땅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고르보와 재회한다. 아이들은 여왕의 잔치에 맞춰 고르보와 함께 스너그 마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다시 써니 베이로 돌아가던 중 보라색 옷을 입은 여인의 고양이를 만나고 그 고양이를 따라가다가 우연히 악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 써니 베이 고아원에 악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르보와 핼과 플로라가 그 악의 세력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써니 베이 훔 고아원은 곧 먼지와 재가 될 운명이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낼 수 있을까? 환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마법과 음모,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베로니카 코스탄텔리 (Veronica Cossanteli)는 세마리의 고양이, 두 마리의 뱀, 한 마리의 기니피그, 다양한 도마뱀들과 함께 사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열종은 그녀의 첫 소설이다. 전작으로는 『The Extincts』, 『The Halloweeds』가 있다.